

# 식량안보, 한-카리브 농업 협력 모색

## 제14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일 서울에서 '제14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은 우리나라와 카리브 지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식량안보를 위한 한-카리브 농업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도미니카연방, 자메이카, 벨리즈, 수리남, 가이아나,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카리브 지역 주요 농업국 7개국과 카리브공동체, 카리브농업개발연구소 등 지역 기구의 고위인사들이 참석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카리브 지역이 식량안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농업 협력 사절단의 자메이카 방문, 한국 농촌진흥청과 카리브공동체 간 농업 기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농업 등 식량안보 관련 협력이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카리브 협력 강화 비전 등 우리의 대카리브 외교 정책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국은 카리브 지역의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효원 농촌진흥청 차장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문제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농촌진흥청은 2025년부터 출범하는 한-카리브 농업연구혁신플랫폼(KoCARP)을 통해 카리브의 식량 자급과 농업 발전을 달성하는 데 카리브 국가들과 실질적인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롤란드 로이어 도미니카연방 농수산·청목축경제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이 한-카리브 농업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과 카리브 지역 간 농업 협력이 단순 기술협력을 넘어 무역과 민간 분야 투자 활성화 등으로 확대·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과 카리브 각국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적응, 스마트 농업기술 등 관련 농업 기술 연구와 개발을 기반으로 식량안보 증진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카리브측 참석자들은 포럼 다음날인 6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농업 기술 발전상과 우수성을 직접 확인한 기회도 갖는다.

외교부와 농촌진흥청은 이번 포럼이 한-카리브 농업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물론,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카리브 지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갈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 '디지털 국토 플랫폼 컨퍼런스' 개최

### LX공사, 신규 서비스 모델 등 전략과제 발굴 나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이병소)가 국가 디지털트윈 공공 플랫폼인 '디지털 국토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과제 발굴과 구축 성과를 공유한다.

LX공사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고 있는 '2024 K-Geo 페스타'에서 '디지털 국토 플랫폼 컨퍼런스'를 열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부에서는 지난 9월 공모를 시작한 '내국민 디지털트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편에 대해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4명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전에서 우수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재난·안전 △도시·행정 △지역·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디지털 국토 플랫폼의 핵심 콘텐츠로 개발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디지털 국토 플랫폼 성과 및 디지털트윈 발전 방안 공유를 주제로 플랫폼 성과 발표와 우수사례 발제 등이 진행된다.

플랫폼 성과 발표에서는 디지털 국토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완료 현황을 공유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중장기 계획도 발표한다. 이밖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가 디지털트윈 공공 플랫폼인 '디지털 국토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과제 발굴과 구축 성과를 공유한다.

한 국내의 우수사례 발제와 디지털트윈 기술 개발 현황, 디지털트윈 기반 부처 간 협업사례, 신규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현황도 공유할 계획이다.

LX공사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디지털 국토 플랫폼의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길 바란다"며 "더욱 많은 분야에 디지털트윈이 활용되어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디지털 국토 플랫폼을 행정망 디지털트윈 공공 플랫폼으로 지정했으며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자체 등에서 활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김욱기 기자

## aT공사, 데이터·AI 활용 물가 예측 경진 예선 결과 발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데이터·AI를 활용한 물가 예측 경진 대회' 예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예측해 농가와 전 국민에 더욱 안정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선에는 총 551개 팀 1400여명이 대거 참여해 농산물 가격 예측 정확도를 겨루어 총 10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확정됐다. 진출팀들은 다양한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한 딥러닝 모델과 부스팅 모델을 활용해 시계열 데이터 예측에 특화된 혁신적인 모형을 제시했다.

본선 진출팀은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본선 행사에서 최종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본선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11월 13~15일)와 연계 진행, 국내 AI 전문가와 국민참여단이 함께 평가를 진행해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선 진출팀 중 △대상 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1500만원 상금 △최우수상 팀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상과 1,000만원 상금 △우수상 3개 팀에는 500만원의 상금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 등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 풍림과마텍 등 3개사, 수출계약 총 5375만달러 체결

### 군산 강소특구기업, 큰 성과로 이어져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성과확산지구에 입주한 (주)풍림과마텍은 군산의 향토기업으로 지난달에 열린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5,000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큰 성과를 냈다.

(주)풍림과마텍은 군산의 대표적인 의류기기(주사기, 주사침, 바이알 등) 제조전문기업으로 매년 군산강소특구의 육성사업(시제품제작, 밸류업 기술지원 등)을 지원받았으며 새금산단단지 1공구에서 22년도 7월에 제공장을 준공을 시작으로 활발히 수요기반의 다양한 맞춤형 의류기기를 연구개발·제조하고 있으며 의류기기 제조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업확장을 위해 25년초 제4공장 준공을 목표로

로 공장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군산을 대표하는 강소특구기업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전북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올해 4차년도도 추진하면서 해외진출관련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 9월 24일~26일까지 (주)더네트(주)에이비솔루션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 전북지회의 베트남 현지기업연계를 통해 상설 전시장에 홍보를 추진하게 되었고, 총 370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군산 강소특구는 특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최근 연구소기업 (주)케이에스씨는 토양계량계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사마화를 방지하고 토양을 회복시키기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에 꾸준



한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이다. 11월 4일~16일까지 EBAN 2024 무역사절단으로 중동지역(리야드, 두바이, 이스탄불)을 방문하여 예코슈 프로젝트 실증을 위해 바이어들과 만남을 진행 중에 있다.

전북 군산강소특구 육성사업 예산은 국비 대비 매년 가장 큰비율의 지방비를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매칭하고 있어 기업수요기반의 다양한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전북개발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상 맞춤형 CS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5일 공사 사옥에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고 신뢰를 높이는 관계형성을 목표로 CS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행복을 부르는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의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신뢰를 높이는 관계법 △서비스 직원의 이미지 관리법 △서비스 응대자의 회복탄력성 높이기 △마음을 여는



대화법 △감정조절법 훈련 등의 내용을 통해 고객 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통 능력 강화에 집중했다.

교육에 참여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입주주민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사 CS 담당자는 "이번 교육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주민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경진원,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2024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잔여분에 대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4분기 잔여분 296억원으로 접수는 11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평일 9시~16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의 구분 없이 통합 한도로 운영된다.

신청대상은 제조업 전업종 30% 이상으로 도내 소재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각 자금별 융자한도와 이차 보전 지원으로 먼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경우,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 시설 자금 지원, 협약금리 5% 중 2.82%는 전북자치도가 지원하고, 2.82%는 기업이 부담한다.

경영안정 자금의 경우, 기업당 최대 3억원(우대기업 5억원) 한도 내 운전

자금 지원, 2~3% 이차 보전 지원한다.

벤처기업 육성 자금의 경우, 기업당 최대 6억원 한도 내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협약금리 5% 중 3.18%는 전북자치도가 지원하고, 1.82%는 기업이 부담한다.

자금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https://jok.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기타 문의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과(063-280-3228)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윤여봉 경제통상진흥원장은 "이번 추가 접수로 연말에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